



# 참좋은친구들

monthly newsletter 05



## 사회적 거리두기 배식

코로나로 인해 실내 배식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보여 주시는 형제 분들께만 제공 되고 있습니다.

## 거리 배식 현장

여의도1지점, 여의도2지점에서 후원해주신 파리크라상 빵과 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후원해주신 서울우유 원두밀 플러스를 개인봉사자분들께서 음성확인증 미지참 형제분들에게 참좋은친구들 입구에서 나누어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분들이 저희 참좋은친구들을 찾아 많은 위로를 받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후원



4월 25일  
닭을 후원해주신  
정재관목사님과  
이길자사모님께서  
방문하셔서  
노숙인분들에게  
힘이되는 말씀과  
저녁배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4월 14일  
가락동(사) 양푼사랑회  
임영길대표께서  
마늘 후원해  
주셨습니다.



4월 13일  
사랑의 쌀 운동본부  
인천지회  
엄익철목사님께서  
김치 기부해  
주셨습니다.

4월 15일  
본 월드 미션  
본사랑(이사장 최복이)  
도시락 150개 와  
쌀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4월 16일  
인천 푸드뱅크에서  
필요한 식재료  
후원해주셨습니다

4월 4일  
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서울우유 원두밀 플러스  
190ml\*24개\*21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국주 장로님과  
이현자 권사님께서  
60만원 후원해주시고,  
풍년떡집의 떡도  
후원해주셨습니다

## (사) 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4월 30일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 나눔에서  
2,625,68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나눔을 통해 참좋은 친구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9일  
강민재, 강민영 후원자님  
맛있는 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4월 20일  
서울교통공사  
나눔봉사단  
단원분들께서  
10만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4월 30일  
백년화편  
이조우 회장님께서  
50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4월 16일  
이종빈 외 6분 후원자분들께서  
양말 후원해주셨습니다.

4월 27일

신성 로터리클럽 회원 분들께서 30만  
원 후원해주시고,  
개인봉사자분들께서 도넛, 백년 화편  
밥알 찹쌀떡을  
형제 분들에게 나누어주시고,  
저녁 배식과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 코리아에서 인스타 그램 동행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배성우입니다. 저희 동행 페이지는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소셜 네트워크 채널이면서, 약 1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함께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단체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와 협력하여 청년 세대들에게 사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를 통해 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매주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초대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역 소재 ‘참좋은 친구들’에서의 봉사는 처음이었는데요,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되었던 오리엔테이션 중,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게으른 분들이 아닙니다.  
선생님 혹은 사업가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같은 이웃이었지만,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삼시 세끼 챙겨줄 가족이라는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훗날 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분명 게으른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했고, 기업들의 후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예민한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십시일반 따뜻한 온기를 모아 위로하고 극복하여, 하루빨리 모두가 희망 찬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말보다 행동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널리 뻗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빌려 봉사를 운영하신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와 ‘참 좋은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로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8-19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귀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식 기다리시는 하늘 가족 분들에게 주님께서 나누라는 내용이 정리되기까지, 그리고 나누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기다렸는데, 저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먼저 저와 저의 가정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새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작년 약속의 땅을 향해 비즈니스 선교를 목적으로 출국했던 나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집트는 영의 자양분을 공급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배양터가 되어 주었고, 체류 기간 동안 열방의 중보 군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육로국경을 목적으로 갔던 요르단에서는 현지에서 요식업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교제를 통해 약속하신 동일한 비즈니스 선교사로 현지에 나가 일터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 중요한 영적인 주님과과의 관계, 매장 운영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언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요르단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현지인 크리스찬을 만난 기쁨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예외없이 모두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크리스찬이라 여기고 있을뿐, 정작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진리도 모르는 불신자 이기에 공허함과 목마름에 담배 중독, 술 중독, 미디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과 관계없이 종교인으로 살면서 채워지지 않던 내 영의 목마름이 십자가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해갈 되었기에, 저의 가족들을 위한 유일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 아닌 모든 터를 허무시고 망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해달라는 간구였고 주님은 저를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저와 저의 가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엄마가 소천하신후, 아버지가 맞아들인 후처는 4 대째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명목상 기독교인이었기에,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자 존재적 죄인의 본성으로 제 동생에게 정인이 사건과 같은 폭력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던 당시 당장 한국에 입국하고자 주님께 간구 했을때, 주님은 제가 이집트에 머물며 진리로 가족들을 세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방안을 서성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동생을 구하러 간 자매에게서, 정작 동생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묵상 본문으로 동생의 출애굽, '길갈'을 약속하셨기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한 출애굽은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옛 자아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자, 동생의 영이 십자가 복음에 아멘하여 자발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죄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자매들의 마음 찢는 회개가 이어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으로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동생은 언니집에서 지내며 상담도 받고 영혼육이 회복되어 갔고 자매들의 대화방에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지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십자가 복음이 결론 되어 믿음으로 승리한 고백들로 넘쳐 났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찾던 마귀는, 어버이날 방문한 자매들 앞에서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짓 회개로 동생을 다시 자기 수하에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야 한다는 걸 알았고 입국 과정을 빠르고 순적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무화된 2 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동생을 어둠 속에 둘 수 없어 입국 후 바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주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십자가로 승리한 전쟁임을 마음에 확신 시켜 주셨고, 두려움에 떨던 사탄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건소와 지자체에 수차례 연락해서 거짓된 이유들을 들어서 딸을 못 오게 하려는 엄마라는 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보건소와 지자체 담당자가 제게 전화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직원이 경찰을 동원해 저를 적진에 들어가기까지 도와주었고 격리 기간임에도 지인 선교사님의 빈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조치해주셨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동생과 함께 성경 통독 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생의 급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도 요르단에서 급히 빼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의무화된 백신 접종을 위해 머물던 집주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7 세 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덮고, 30 년 가량을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며 의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었지만 10 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하고 홀로 키우던 아들과 마찰이 심해져 아들을 근처 부모님 댁에 맡기고 하루 종일 줄 담배를 피우는 니코틴 중독자였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나누고 먼지가 덮여있던 성경을 다시 펴서 진지하게 읽고 질문하는 그와 그의 가족들과 친밀한 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미래를 함께하자는 구애가 계속되자, 초반엔 무시하고 끊어냈지만 점차 육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서 주님이 저를 급히 건져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시편 51 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새 엄마를 괴수라고 돌 던질 수 없는, 나 또한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과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복음이요,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때부터 동생은 신실한 저의 중보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평생의 동역자를 보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기도이 이제 동생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와 가정에 급하고 강하게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것을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재무장 시켜 주십니다.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저와 저의 가정, 하늘 가족과 열방의 교회가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찬송 부르며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마음 다해 응원해주시고 생명의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시는 하늘 가족 분들이 있어 참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좁은 길 끝까지 같이 가기를 소망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에서 비지니스 선교로 일터 교회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법적 절차가 순적 하게 이루어지도록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저의 가정과 하늘 가족과 열방의 교회에게 실제 되도록
3.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 들이 생명 수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더이상 육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THE GOOD SAMARITANS-04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 개인후원

KUPKA, PIOTR ZHAOQIUY 강도련 강영실 강정남 강협봉 강호영 곽호석 권예은 기형미(최영일) 길은정 김경옥 김광락 김나리 김도운 김명삼 김명임 김명희 김문정 김미나 김민정 김민지 김병용 김복임 김석배 김성심 김성자 김성호 김세희 김수안 김승우 김승철 김신애 김영미 김영순 김용덕 김운하 김윤애 김윤정 김으뜸 김은재 김익천 김인환 김일 김정미 김정옥(임성수) 김정후 김지학 김진주 김태동 김현경 김혜순 김홍하 김효순 김효진나유정 나지연 나치우 남택호 노진경 류석종 무명 문태자 박금숙 박금자 박래면 박봉화 박성수 박연숙 박영숙 박영애 박재울 박지연 백정숙 서은광 서창식 서희정 선종운 손동민 손사라 손주창 송기철 송낙준 송창운(노윤서) 신경미 신금자 신대기 신상태 신석출(손환기) 신영애 신현정 안미영 안재우 안지희 오상옥 오선영 오지원 왕진희 용석준 용환옥 우다은 유영숙 유용백 이국주 이규환 이근호 이덕영 이민오 이병헌 이상희 이성재 이세영 이영선 이에재 이재용 이종규 이주섭 이현자 이해영 이화영 익명(후원금) 임경숙 임재범 임재석 임진모 임희진 장인애 전미성 전미정 전보라 전선미 전재욱 정경숙 정나현 정동진 정영애 정하종 정학영 정해옥 조옥현 조윤옥 조혜진 주경애 주영철 진윤미 채규달 최경식 최규환 최종림 최한나 하소영 허길자 허아름 홍성정 홍승모 화혜옥 황문영 황의난

## 단체/기업후원

(주)풍년제과 (주)명보프린트 (사)창공우암 (주)백년화편 (주)엘현삼 (주)딜로이트 한마음나눔(안진회계법인) 서울교통공사 나눔봉사단



## 교회후원

강동제일교회 소망교회 기도회 광현교회 은누리교회 영신교회 선린봉사단  
홍성교회 소망교회 사회봉사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세아니아 선린교회  
은누리교회 성북공동체 남서울은혜 교회바울다락방 말씀의 빛교회 열린교회  
염산교회

### 십시일반 후원계좌

우리 은행 1005-602-193177 참좋은친구들